

한국설화 속에 깃든 인본주의 고찰

융합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Humanism in Korean Folktale - focused on fusion -

저자 (Authors)	이화형 Lee, Hwa Hyung
출처 (Source)	우리문학연구 47 , 2015.7, 105-132(28 pages) The Studies of Korean Literature 47 , 2015.7, 105-132(28 pages)
발행처 (Publisher)	우리문학회 The Studies Of Korean Literature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6391078
APA Style	이화형 (2015). 한국설화 속에 깃든 인본주의 고찰. 우리문학연구, 47, 105-132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83.106.106.*** 2021/07/10 16:36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한국설화 속에 깃든 인본주의 고찰

—융합을 중심으로—

이 화 형*

〈 목 차 〉

- | | |
|--------------------|-----------|
| I. 머리말 | 3. 인간과 인간 |
| II. 인본주의를 향한 융합 양상 | 4. 남성과 여성 |
| 1. 인간과 신(자연) | III. 맺음말 |
| 2. 인간과 동식물(사물) | |

〈국문초록〉

한국의 설화에는 인간존중과 더불어 공동체의식을 지향하는 내용이 많은 편이며 인간중심의 새로운 윤리관을 제시하고자 했음이 역력하다. 이러한 휴머니즘적 사유를 이야기 사재를 중심으로 융합적 방식에 따라 분석해볼 수 있다.

인간과 신(자연)의 경우, <단군신화>는 하늘로부터 땅에 이르는 자연을 기반으로 인간이 탄생되었듯이 인간이 자연과 융합을 이루는 것이 이상적인 삶을 암시한다. 인간을 중시하는 한국적 사유체계가 대부분의 신화에서도 엿보이는데 많은 한국신화가 역사적 인물의 신격화 과정을 말하고 있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건국시조들은 왕업을 성취한 후 죽어서 산신이 되거나 시조신 격으로 숭앙을 받게 되며 전국의 많은 마을들이 원통하게 죽은 역사적 인물들을 신격화하여 마을신으로 모시게 된다.

인간과 동식물의 경우, 먼저 ‘동식물의 인간화와 구원’에서는 <단군신화>에서와 같은, 여성의 몸으로 변한 곰도토텐을 비롯하여 檀樹나 쑥과 마늘이 갖는 식물숭배의 토텐이즘을 간과할 수 없다. 또한 <김현감호>설화에서와 같이 호랑이는 일찍부터 여성 토텐으로 숭앙되었다. 다음으로 ‘인간의 동식물화와 구원’에서는 <효자호랑이>전설처럼 남편이 호랑이가 되어 맹목적으로 효를 실천하는 비극적인 결과를 지적한다. <대왕암>전설처럼 문무왕이 죽은 뒤에 용이 되어 나라를 지켜주고, <선비와 구렁각시>처럼 여인의 정체가 구렁이임을 알고 위기에 처해서도 의리를 발휘하여 용이 되도록

* 경희대학교

도와주었다.

인간과 인간의 경우, ‘이상과 현실의 괴리’에서 <오장군>전설처럼 주인공이 긍정적인 인물이고 비범한 능력의 소유자이나 불운하게 좌절하고 만다. <아기장수>전설처럼 가혹한 정치에 시달리는 민중들이 장군의 출현을 기원하지만 막상 장군이 나타나자 그를 거부하고 만다. ‘뽕에 대한俗의 대결’에서는 <도미아내>처럼 아름다운 도미아내를 탐하는 개루왕의 추악함이 문제되고, <장자못>전설처럼 도승의 탈속을 지향하는 머느리에 욕심 많은 황부자 영감이 부각된다. ‘미천함의 역동적 성취’에서는 <울산바위의 유래>처럼 절이 재정적 위기에 처하게 되자 동자승이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고, <백정과 박문수>이야기와 같이 하류계층의 백정이 도량과 인격을 갖춘 인물로 등장한다.

남성과 여성의 경우, 우리의 시조신화는 남성적인 북방 유목민의 천손신화와 여성적인 남방 농경민의 난생신화의 융합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남성과 여성으로 유추되는 天父地母의 신성혼인은 한국신화의 구조적 전형이라 할 만하다. 특히 <달래강>전설에서와 같이 남성과 여성의 융합관계에서 드러나는 생명사상의 고취를 우리 이야기의 핵심가치로 삼을 수 있다.

주제어 : 한국설화, 인본주의, 융합, 인간과 신, 인간과 동식물, 인간과 인간, 남성과 여성

I. 머리말

백성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천지간 만물 중에 사람밖에 또 있는가’라고 읊조렸던 바와 같이 한국문화 속에는 인간을 존중하는 의식이 깃들여 있다. 중국의 『삼국지』·『후한서』 등에서 우리가 예의와 행동이 엄격하고 양심과 정의가 있음을 칭찬한 것도 근거를 두고 한 말이다. 상상의 이야기에는 가치 있는 삶, 생활의 지혜 등을 공통적으로 제시하지만, 특히 우리의 이야기에는 인간존중을 지향하는 내용이 많은 편이다. 비록 인간에게는 도덕과 이념이 있지만 한 시대에 갇히고 경직된 윤리로 머무는

경우가 있으나 우리의 이야기는 이러한 모순에 대해 냉엄하게 비판하고 인간중심의 새로운 윤리관을 제시하고자 한다. 편협 되기 쉽고 그릇 판단 하며 끊임없이 이기적 욕망에 사로잡히는 인간의 존재적 한계를 일깨워 주는 데 우리 이야기는 일정한 역할을 해 왔다.

이렇듯 소통하고 배려하는 인본주의적 태도는 융합의 정신에서 나온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우리는 늘 자연과 조화를 꿈꾸었고 인간 상호간에 존중할 것을 소망했다. 한마디로 융합이 한국문화의 DNA이자 핵심가치라 할 수 있다.¹⁾ 예술분야만 살펴보다라도 융합적 가치는 분명히 드러난다. 우리의 음악은 자연과의 융합에서 이루어지며 그 다음에 소리와 소리의 융합에서 멋과 가치가 극대화된다. 삶의 현장을 담아내는 춤과 극에서 모두가 관심을 갖는 것은 극적 공감보다는 함께 호흡하는 공동체적 의식의 함양이었다. 민화의 가치는 구조적으로 융합의 가치를 지향하는바 호랑이 옆에 있는 동자가 겁에 질려 도망치는데, 그 호랑이는 산신 앞에서 한 마리 강아지처럼 온순하기만 하다.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이야기영역도 다르지 않다. 가령 <단군신화>가 지닌 인본주의적 사상은 예사롭지 않은데, 인간중심의 개념이 신격적 요소와 호응하면서 부각된다는 점에서 융합적 의미가 크다. 설화에는 이야기의 주인공들이 등장한다. 이 인간들이 어떤 관계 속에서 목표를 향해 가는지에 대해 크게 네 분류의 융합차원²⁾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본고의 전략이다. 다만 신화·전설·민담으로 구분³⁾되는 대표적인 설화적 사례를 중심으로 논의해가고자 한다.

1) 이화형, 『민중의 꿈, 신앙과 예술』, 푸른사상, 2014, 7면.

2) 크게는 융합을 넷으로 분류하지만, ‘2.인간과 동식물, 3.인간과 인간’에서와 같이 그 내부에서도 융합이 가능하다고 본다.

3) 신화, 전설, 민담으로 구분한 것은 여러 양식들을 그 내용이나 형식의 유사성에 의하여 좀더 간편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여러 양식적 특징이 혼재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가령 전설이나 민담에도 산신령·도깨비 같은 초월적 존재가 등장할 수 있다.

II. 인본주의를 향한 융합 상상

1. 인간과 신(자연)

영국의 민속학자 말리노프스키의 지적대로, 원시인이나 고대인들에게 신화는 독실한 기독교인들에게 ‘천지창조, 타락, 십자가에서의 죄’라고 하는 성서의 이야기와 같은 의미를 지닌다.⁴⁾ 곧 신화는 자연발생적으로 꾸며낸 이야기로서 인간 활동을 구속할 만한 규범적 기능을 제시하므로 한 민족의 신화는 그 민족의 문화를 형성해 온 핵심요소이자 문화적 원형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단군신화>는 우리에게 충분한 의미가 있다. 더구나 <단군신화>에서 ‘인간세계를 널리 이롭게 할 만하다’는 말은 애초부터 우리 민족이 지녔던 휴머니즘적 사상을 표명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또한 ‘환웅이 자주 천하에 뜻을 두고 인간세상을 탐내었다’와 ‘곰 한 마리와 범 한 마리가 늘 환웅에게 사람이 되도록 해달라고 빌었다’는 것도 간과할 수 없다. 신적 존재인 환웅이나 지상적 존재인 곰이 모두가 강렬하게 인간세상을 동경하고 뜻을 실현한다는 것은 <단군신화>가 지닌 휴머니즘적 특성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나아가 하늘로부터 땅에 이르는 자연을 기반으로 인간이 탄생되었듯이 <단군신화>는 인간이 자연과 조화(융합)를 이루는 것이 이상적인 삶을 암시하기도 한다. 따라서 공동체적 질서를 토대로 하는 이러한 휴머니즘은 <단군신화> 전체를 지배하는 정신임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⁵⁾

옛날에 환인의 아들 환웅이 자주 천하에 뜻을 두고 인간세상을 탐내었다. 아버지는 아들의 뜻을 알고 삼위 즉 태백이라는 거룩한 산을 내려다

4) Bronislaw Malinowski 지음, 서영대 옮김, 『원시신화론』, 민속원, 1996, 21면.

5) 이화형, 『민중의 꿈, 신앙과 예술』, 푸른사상, 2014, 439면.

보니 인간세계를 널리 이롭게 할 만하므로 천부인 세 개를 주어, 내려가서 세상사람을 다스리게 했다. 환웅은 그의 무리 삼천 명을 이끌고 태백산 꼭대기 신단수 밑에 내려와서 이곳을 신성한 도시라 불렀다. 이 분을 환웅천왕이라 한다. 그는 바람을 주관하는 자, 비를 다스리는 자, 구름을 맡은 자를 거느리고 곡식, 수명, 질병, 형벌, 선악 등 무릇 인간의 삼백 예순 가지나 되는 일을 주관하여 인간세계를 다스려 교화하였다.⁶⁾

인간과 함께 하는 신 또는 신화가 서양과 동양에서 어떻게 다르며, 우리의 신화가 가까운 중국이나 일본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관심거리가 아닐 수 없는데, 이는 무엇보다 신화가 민족적 특성을 잘 드러내기 때문이다. 서양은 창조주에 의해 창조된 세상(자연)이라면 동양은 저절로 이루어진 세상이다. 서양의 신은 절대 권위적인 인격신인데 비하여 동양의 경우 자연이 그대로 신인 자연신으로 인간친화적이다. 다시 말해 서양에서 인간은 피조물에 불과할 뿐인데 비해, 동양에서는 인간도 신에 해당하는 우주본체(자연)의 신성을 나눠 받은 존재로서 고귀한 개념으로 존중된다.

위 인용문을 통해 우리의 토착사상 가운데 천신숭앙의식을 인지할 수 있다. 환인과 환웅은 하늘에 있는 신선이며 심지어 단군도 하늘의 위상을 지닌다. 다만 환인은 초자연적 존재인 하느님이기만 한 데 비하여, 아들인 환웅은 지상의 역사적 시간 속으로 들어왔다. 한편 “태백산 꼭대기 신단수 밑에 내려와서”라 하고 그 다음에도 “단군은 장당경으로 옮겼다가 뒤에 아사달로 돌아와 숨어 산신이 되었다.”고 했듯이 <단군신화> 속에는 산신숭앙의식이 깃들여 있다. 특히 호랑이가 환웅을 찾아갔다가 뛰쳐나옴으로써 하늘을 두려워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데, 호랑이가 하늘로 올라가려다가 줄이 끊어져 땅에 떨어지는 곤욕을 치른다는 <해와 달이 된 오누이>설화에서도 호랑이는 하늘과 인연이 없음을 드러낸다. 결국

6) 일연, 『삼국유사』 제1권, 고조선.

호랑이는 하늘나라에 올라가지 못하고 산을 지키는 산신으로 남게 되었다. 건국시조들이 죽어서 승천하기도 하지만 산신이 되는 경우가 많다. 한국신화에서도 이 같은 현상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산신은 곧 천신이기도 하다는 관념의 소산일 것이다. 물론 산은 지상의 존재이지만 높은 산은 하늘에 닿을 만한 곳이라는 믿음으로 산신과 천신을 동일시했다고 본다. 건국시조를 산신이 낳는다는 신화 속의 내용도 이를 뒷받침한다. 즉 혁거세의 경우 하늘에서 내려온 알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한편, 산신이 된 선도성모가 낳았다고도 한다.

무엇보다 인간을 중시하는 한국적 사유가 대부분의 신화에서도 엿보인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모든 신화는 신과 인간이 관계 맺는 과정을 드러낸 이야기라는 공통분모로 묶일 수 있으나 많은 한국의 신화가 역사적 인물의 신격화 과정을 말하고 있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단군, 주몽, 혁거세, 알지, 수로 등에서 보듯이, 역사적 시간 속으로 들어온 건국시조들은 시련을 극복하고 왕업을 성취한 후 죽어서 산신이 되거나 시조신격으로 숭앙을 받게 된다. 그런가 하면 전국의 많은 마을들이 원통하게 죽은 역사적 인물들을 신격화하여 마을의 당신으로 모시게 된 과정을 신화에 담아 전한다.

이와 같이 인간이 신격으로 좌정하는 계기는 건국 같은 위대한 업적, 농사나 출산 같은 모범적 행위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런 양상은 한국의 신화가 우주나 세계의 창조가 이루어진 태초의 신화적 시간보다 역사적 시간에 더 많이 관계하고 있는 점과 상응한다. 조선창업을 신화로 재현한 <용비어천가>가 역사적 해석이 주가 되면서 신화적 상상력이 크게 위축된 것도 예외는 아니다. 결국 한국신화가 지닌 휴머니즘적 사고와 현실적 경향을 드러내는 것이다.⁷⁾ 이에 우리 건국신화의 주인공인 단군

7) 강등학 외, 『한국 구비문학의 이해』, 월인, 2000, 84면.

이나 주몽은 인간의 수명을 누리다 죽었기 때문에 신이라 할 수 없으며, 신의 후손이라 할 수는 있어도 인간적 면모를 갖추었기 때문에 신에 관한 이야기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⁸⁾고 하는 것도 일리가 있다.

堂신화는 한 마을에서 모시고 있는 신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정착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이야기이다. 마을 수호신의 신비성을 의식하고 제의를 바침으로써 마을공동체의 안정을 꾀한다. 마을을 둘러싼 자연물의 창조적 역사를 담당하 <마고할미>이야기가 마을신화의 예가 된다. 마주보는 두 산에 가랑이를 걸칠 정도로 거구인 마고할미가 돌이나 흙을 지고 다니면서 산봉우리를 만들고 오름이 강이 되고 뚝이 섬이 되며 치마로 산의 돌을 쳐내어 넓은 들판을 만들어주기도 했다. 인간적 본능과 존재적 근거에 관련된 <해랑당>이야기도 당신화를 설명할 수 있는 적절한 예라 하겠다. 뜻을 이루지 못하고 죽은 처녀의 원혼을 달래기 위해 제의를 지내줌으로서 마을의 재앙을 극복하고 풍요를 회복했다는 얘기다. 마을신의 좌정은 대개 원혼전설의 형식을 취하는데, 죽음의 원통함을 풀기 위해 연고가 있었던 영주 순홍 두렛골 사람의 꿈에 나타나고 그곳의 堂神으로 모셔진 <금성대군>이야기도 이에 해당함은 물론이다.

자연신으로서의 신격과 인간이 만나는 우리 신화의 휴머니즘적 성격은 얼마든지 그 예를 찾아볼 수 있다. 생산과 풍요를 기원하는 농경사회에서 임신과 출산을 담당하는 여성이 ‘地母神’으로 숭배되었던 것은 자연스런 귀결이다. 또한 우리는 일찍부터 ‘聖母神’을 극진히 모셨는데, 선도산성모는 박혁거세와 그의 아내 알영을 낳았을 것이라는 성모(신모)요 박제상의 아내 치술부인도 성모신이고 김수로왕을 낳은 정견모주도 성모신이다. 알을 낳은 유희는 주몽의 어머니가 되고 나중에 신으로 좌정했는데 유희는 이미 해당지역에서 생산과 창조의 신으로서 ‘버들신’이자 빛과의 결합을

8) 장덕순 외, 『구비문학개설』, 일조각, 2006, 54면.

통해 주몽을 잉태한 ‘수신’으로 인정을 받고 있었다.

2. 인간과 동식물(사물)

1) 동식물의 인간화 및 구원

인간의 안전을 도모코자 인간 스스로 특정한 동물이나 식물을 집단의 상징으로 삼고 숭배하는 토론티즘은 세계 여러 나라에도 잘 나타나고 있다. <단군신화>의 핵심이 되는 웅녀에 관한 이야기도 세계에 널리 분포되어 있는데) 이 같은 토론티사상을 지닌 우리의 근원신화를 분석해 봄으로써 우리 민족의 문화적 전통과 정신적 가치를 찾아볼 수 있다.

이 때 곰 한 마리와 범 한 마리가 같은 굴에서 살았는데, 늘 신용 즉 환웅에게 사람이 되도록 해달라고 빌었다. 이에 환웅은 신령스런 쑥 한 묶음과 마늘 스무 개를 주면서 말했다. “너희들이 이것을 먹고 백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않는다면 사람이 될 것이다.” 곰과 범은 이것을 받아서 먹었다. 곰은 환웅이 시킨 대로 금기사항을 지키니 삼칠일, 즉 21일만에 여자의 몸으로 변하였다. 그러나 범은 능히 이를 지키지 못해서 사람이 되지 못했다.¹⁰⁾

위 내용은 천신족의 우월성을 제고하면서 새로운 시대를 맞는 과정을 표상한다고도 하나 웅녀의 시련은 성년이 되기 위한 통과제의적 의미를 전한다고 본다. 물론 고조선 이후 한민족을 상징하는 동물은 곰이 아니라 호랑이가 됐다. 이야기 속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동물도 호랑이고 호랑이가 많이 살아 호랑이 나라라고도 불렸다.¹¹⁾ 조선시대 민화에 가장 자주

9) 홍순창, 「원시생활에 나타난 한국의 고유한 사고와 사상」(상), 『한국민족사상사대계』1권, 아세아학술연구회, 1971. 28~29면.

10) 일연, 『삼국유사』 제1권, 고조선.

등장하는 동물이 호랑이인 것도 마찬가지다. 호랑이는 일찍부터 여성토텐으로 숭앙되었으니 견훤이 갓난아이였던 시절 그의 부친이 밥을 갈고 있을 때 어머니가 밥을 가져다주려고 아이를 수풀에 두었더니 범이 와서 젓을 먹었다¹²⁾는 이야기가 이를 뒷받침한다. <김현감호>설화도 예외는 아니라고 본다. 호랑이가 처녀로 변하여 흥륜사에서 탐돌이를 하다가 김현을 만났고, 김현은 몸을 바쳐 자기를 출세시킨 호랑이에게 감동을 받았다는 이야기이다.¹³⁾ 호랑이 처녀는 타인의 죄를 자신이 대신하며 남성에게서 구하기 힘든 희생적 정신을 보임으로써 여성 특유의 긍정적 가치를 유감없이 드러냈다.

위 인용문 앞에서 ‘환웅은 신단수 밑에 내려와서’라고 한 것과 인용문 뒤에서 ‘웅녀가 신단수 아래에서 어린아이를 갖게 해달라’고 축원한 구절에서 알 수 있듯이 단수는 하느님에게 제사를 지내는 신성한 곳이다. 다시 말해 천신의 아들이 단수로 내려왔다는 얘기에서는 나무에 정령이 깃들어있다고 믿으며 섬기는 식물숭배의 토템이즘을 엿보게 된다. 나무가 인간의 수호신인 썸이다. 위 인용문에 나오는 ‘쑥과 마늘’도 토템이즘 현상의 일부로 읽힌다. 쑥의 약효는 물론 마늘에는 알칼리신이라는 강력한 살균 성분이 있고, 쑥과 마늘은 피부를 희고 건강하게 한다고도 하며, “환웅은 처음으로 쑥과 마늘을 먹도록 식생활을 일깨워준 문화영웅이라”¹⁴⁾고도 한다.

한편 우리의 <도깨비>이야기는 악귀를 쫓는 신으로서 오랜 세월 회자되고 있다. 도깨비는 인간의 손때가 묻은 물건뿐만 아니라 나무, 돌, 풀 같은 자연물이 변해서 되었고 밤이 되면 사람의 모습을 비롯하여 오묘한

11) 이화형, 『민중의 꿈, 신앙과 예술』, 푸른사상, 2014, 399면.

12) 일연, 『삼국유사』 제2권 기이 제2 후백제 견훤조.

13) 일연, 『삼국유사』 제5권 감통 제7 김현감호.

14) 임재해, 「단군신화에 갈무리된 문화적 원형과 민족문화의 정체성」, 『단군학연구』16, 고조선단군학회, 2007, 287면.

형태의 생명체로 둔갑하여 나타난다. 다른 잡귀는 인간과 적대적이지만 우리 도깨비는 인간에게 당하기도 하는 어리숙한 매력이 있다. 도깨비는 우리의 전설과 민담에 서민적인 모습으로 다채롭게 등장한다. 도깨비는 사람을 희롱하기도 하지만, <혹부리영감>이야기를 보듯 사람들에게서 혹은 떼어가고 보물을 가져다주는 신통력으로 인간을 돕는다. <도깨비방망이>이야기를 보면 착한 사람은 방망이를 얻어 부자가 되지만, 악한 사람이 방망이를 얻으려고 흉내 내면 혼이 난다. 도깨비는 사람과 가까이 살면서 진실한 삶의 가치를 가르쳐주는 인본주의적 한국문화의 대표적 상징이다.

어려운 상황에 처한 주인의 목숨을 구하는 충직한 개 이야기인 <의구총>이야기도 인간의 가치를 추구하는 전설이라 하겠다. 사람의 목숨을 구원하는 내용은 물론 인간과 동물이라는 존재적 문제의 접근은 인간의 존귀함을 더욱 강조하는 이야기라 본다. 한편 민담은 행복한 삶에 대한 민중의 꿈을 반영하는 만큼 그 꿈은 운명을 극복하는 인간의 강인한 신념이나 의지를 요구한다. 변신을 다룬 전래민담 중 가장 흔한 유형인 동물변신형 설화인 <구렁덩덩신선비(일명 뱀신랑)>를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뱀에게 시집간 이웃집 셋째 딸이 뱀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해 행복한 결혼생활이 깨지지만 좌절하지 않고 집요하게 노력하여 뱀의 관용 속에 다시 행복을 찾는다는 내용을 주제로 한다.

2) 인간의 동식물화 및 구원

<효자호랑이>전설이야말로 인간회복을 핵심으로 하는 이야기의 표본이라 하겠다. 천 마리의 개를 먹어야 어머니의 병이 낫는다고 하자 아들은 호랑이가 되고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산신에게 빌었다. 산신은 책을 주어 책을 읽으면 호랑이가 되고 다시 책을 읽으면 사람이 되게 했다. 그

런데 남편이 호랑이가 되어 나가는 것을 본 아내가 그만 책을 불 지르고 말았다는 이야기다. 맹목적인 효의 실천이 낳은 비극적인 결과를 통해 윤리나 이념의 허구성을 지적한 것이다. 효를 위해 천일 동안이나 남편의 개를 훔쳐오고 나중에 아내도 죽이는 주인공의 태도는 합리적으로 용인될 수 없다. 주인공으로 하여금 동물과 인간 사이를 오가게 하며 끝내 이념적 가치보다 인간다움을 드높이는 존재론적 이야기라 하겠다.

<용개들>전설의 경우도, 인간의 존재성을 부각시키는 이야기다. 승천을 기다리던 큰 뱀이 용이라고 부르는 어린 아이의 말을 듣고 하늘에 오르면서 감사의 표시로 넓은 들을 마련해주었다는 줄거리를 지닌 전설이다. 용의 승천까지도 아이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데서 인간의 존재적 가치를 떠받치고 있다. 한편 우리의 지명 전설은 생활공간을 공유하는 지역공동체의 유대감이나 연대의식을 여실히 보여주는데, 소박하고 인간적인 정서가 함축된 한국적 이야기의 일단이라 하겠다.

신라 문무왕의 유언에 따라 동해 바닷가에 장사지냈다는 <대왕암>전설을 보면 문무왕은 삼국을 통일한 업적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왜적의 침입을 염두에 두고 용이 되어 막아보겠다는 생각에 죽으면 동해에 묻어달라는 말까지 남겼다. <대왕암>전설은 문무왕이 죽은 뒤에 큰 바위에 장사하였다는 기록¹⁵⁾으로 남아 있고, 그 증거물로 대왕암이 있어 역사학계에서 주목해 왔다. 대왕암과 관련 문무대왕의 비도 죽어서 호국룡이 되어 나라를 지키겠다고 하여 바위섬 아래에 묻혔다는 이야기도 전하고 있다.

다음의 이야기는 <선비와 구렁각시>라는 전국적인 민담이다. 구렁이나 지네 같은 비현실적 존재가 등장하고, 이들이 사람으로 변신하는 등 일상적 경험의 틀을 벗어난 환상적 민담이다. 민담 속에 수없이 동식물이

15) 김부식, 『삼국사기』 권7 문무왕.

등장하는 것은 태고이래 지속되어 온 현상으로 인간은 생활 속에서 부단히 동식물들과 접촉하면서 살아왔으며 원천적으로는 인간이 그것들과 다른 것도 아니다. 이런 믿음 때문에 인간은 늘 동식물로 변신할 수 있으며 혹은 반대의 경우도 가능한 것이다. 이 이야기는 지역과 전승자에 따라 구렁이가 처녀 혹은 미망인으로, 지네가 돼지로 변화된 것을 볼 수 있다.

선비가 집에 돌아와 보니, 정말로 평생을 먹고 살 재물이 있었다. 집에서 두어 달 묵다 보니 그 여인이 생각나 다시 길을 떠나 여인의 집을 향했다. ---한 노인이 선비를 불렀다.

“나로 말하면 자네 선친의 친구일세. 자네 지금 웬 여자를 찾아가는 길이 아닌가. 그 여자는 사람이 아니라 요괴야. ---밥을 한 술 떠서 입에 물었다가 삼키지 말고 여자를 향해 확 뱉어 버리면 죽음을 면할 수 있어.”--- 선비는 눈을 들어 여인을 한 번 바라보았다. 그러더니 밥을 꼭 씹어서 목구멍으로 꿀떡 삼켰다. 그렇게 밥 한 그릇을 남김없이 다 비웠다. 그러자 여인이 선비의 손을 덥석 움켜쥐는 것이었다. 눈물을 흘리면서 여인이 신기한 이야기를 전해 주었다.

“선비님이 만난 그 백발노인은 천년 묵은 지네로, 이 골짜기에 나와 함께 살고 있는데 우리 둘 중 하나만 용이 되어 승천할 수 있는 운명이었지요. 제가 이번에 선비님의 마음을 얻으면 용이 돼서 올라가게 되는지라 그 일을 방해하려고 그렇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제 저는 선비님 덕택에 용이 되어 승천하게 됐습니다.”¹⁶⁾

위 이야기에 이어 여인은 선비의 앞날을 기원하고 용이 되어 승천하였고 선비는 하는 일마다 잘 풀려서 평생을 편안하게 살았다고 한다. 가난한 선비가 자신에게 도움을 준 처녀가 구렁이임을 알고 고민하다가 구렁이를 도와서 용이 되도록 했다는 내용이다. 은혜를 잊지 않는 마음의 소중함을 잘 보여주는 아름다운 이야기다. 이 민담의 중요한 관건은 인연을

16) 강동학 외, 『한국구비문학의 이해』, 월인, 2000.

맏었던 여인의 정체가 구렁이임을 알았을 때, 그리고 아버지 이름으로 퇴치의 명을 받았을 때에 있다. 민담은 희망적이고 낭만적인 삶을 그리는데 <선비와 구렁각시> 역시 마찬가지다. 선택이라는 문제로 행복한 삶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보여주는 동시에 행복한 삶의 성취라는 긍정과 환상을 표출한다. 전승력을 갖는다는 것은 흥미성을 담보로 하지만 민담이 흥미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그 이면에는 우리 민족과 민중의 생활과 이상이 새겨져 있다.

3. 인간과 인간

1) 이상과 현실의 괴리

특히 전설에는 역사성과 더불어 충신, 명장, 명유, 고승, 효자, 열녀 등의 다양한 인물이 등장한다. 삼국시대만 하더라도 통일의 주역인 김유신의 영웅적 모습, 자기 살까지 베어 병든 부모에게 바쳤던 향덕·성각의 효행, 권력 앞에 굴하지 않았던 도미아내의 정절 등이 전하고 있다. 한편 고려시대 여우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강감찬의 출생이 주목 받아 왔고, 두 번의 몽골침략을 승리로 이끌고 벼슬도 거부한 승려 김윤후를 후세는 영웅으로 기억하고 있다. 조선시대 여우구슬로 걸출한 유학자가 되었다는 이황과 이이,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민족애를 보인 광재우와 부인, 권술, 논개, 계월향, 사명당, 제철 아닌 음식물로 부모 병을 낫게 하는 효자이야기도 많다.

전설의 주인공은 신화와 달리 인간에 해당하며, 민담과 달리 대부분 훌륭한 인물이다. 문제는 전설의 주인공이 비범할지라도 인간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닥친 사회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지 못하기 일쑤며 따라서 결말이 비극적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¹⁷⁾ <오장군>전설에 등장하는 오장군

은 긍정적인 인물이므로 불우한 결과에 이를 까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결말이 불행해진다. <장자뭇>전설의 며느리가 선행을 하고도 금기를 어겨 바위로 남는 것은 인간적 한계 때문이었다. 뛰어난 사람들이 불행해지는 전설의 결말은 인간의 속성을 여러 모로 일깨워주는 구실을 한다. <임경업>이나 <신립>전설도 마찬가지로 각각의 주인공이 비범한 능력의 소유자이나 불운하게 좌절하고 만다.¹⁸⁾

<아기장수>전설도 모순과 한계를 지닌 본질적 인간의 문제에 대한 접근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옛날에 가난한 농부의 집안에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아기의 양쪽 겨드랑이에 비늘이 하나씩 나 있었다. --- 방안으로 들어와 보니 아기가 천정을 날아다니는 것이었다. --- 부부는 아기를 죽여야 한다고 생각했다. 필시 이 아기가 자라면 반역자가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렇게 되면 온 집안 식구는 몰살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자는 아기를 업고 산 속의 후미진 바위로 가서 그 위에 올려 놓았다. 아기는 자기가 죽을 것을 알았는지, --- 자기 무덤 안에 콩 500알과 팥 500알을 같이 넣어 달라고 하였다. 그 말을 듣고 어머니는 아기를 바위로 눌러 죽인 후에 소원대로 콩과 팥을 넣어 주었다. --- 부부를 앞세워 포졸들이 무덤에 와서는 무덤을 파헤치기 시작하였다. 무덤 안에서는 콩과 팥이 병사와 말로 변신하여 열심히 군사훈련을 하고 있었는데, 무덤이 파헤쳐지자 도로 콩과 팥으로 변해 버렸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는데 사람들에게 들켰기 때문이다.¹⁹⁾

전국에 걸쳐 분포되어 있는 <아기장수>전설에서 주목할 만한 내용은

-
- 17) 계층에 따라 이야기 대상 인물의 선택이나 이야기하는 방식에서 일정한 차이를 보여 주고 있다.(조동일, 『인물전설의 의미와 기능』, 영남대출판부, 1979, 421~429면).
 - 18) 전설이 대체로 비극적인 좌절로 끝나는 데 비해 <아랑의 전설> 같은 원혼전설은 경직된 가치관을 넘어 인간적 본능과 문제해결의 의지를 적극적으로 발현하는 대표적인 예라 하겠다.
 - 19) 서울특별시, 『서울민속대관』(6, 구비설화편), 1994.

이울배반적인 속성을 보이고 있는 점이다. 아기장수는 가혹한 정치에 시달리는 민중들의 꿈의 투영이다. 그들은 현실을 벗어나기 위해 장군의 출현을 기원하지만 막상 장군이 나타나자 그를 거부하고 만다. 갓 태어난 아이를 살해하는 부모도 무력한 하층민의 모습을 보여준다. 변혁이 일어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하층의 인재를 용납하지 못하는 지배층의 나약한 의식도 간과할 수 없다. 현실적인 삶과 미래적 가치관의 거리를 뛰어넘을 수 없는 단절을 읽게 된다. 정치적 내홍과 외세의 도래라는 역사적 현실은 인물전설을 통해 새롭게 부각되었는데, <최제우>전설은 득도하여 세상을 구하려다 수난을 겪는 영웅의 일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아울러 항일 의병장 신돌석 등과 결부된 이야기도 안타까운 현실 속에 재현된 영웅전설이다. 물론 성공한 인물의 전설은 사실에 기초하여 위대하게 언급되기 마련이지만 전설적으로 창조된 인물들은 타고난 역량에도 불구하고 좌절하도록 그려져 있다.

전설은 ‘인간과 사물’을 포함하여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통해 예기치 않던 일들로 인해 일어나는 불행한 상황을 매우 민감하게 다루고 있다. 심지어 신비한 자연물 전설마저도 현실적 한계를 잘 보여준다. <그림자 못>, <쌀 나오는 구멍>만 하더라도 아직껏 어느 못도 사람의 그림자를 바로 비추어주며, 어떤 바위에서도 쌀이 나오거나 물이 나온 적이 없다. 영웅적 인물들이 현실적으로 좌절하고 마는 구조와 마찬가지로 초월적 자연물이 현실에 맞게 변화된 것이다. 무한한 상상과 괴리된 현실 속에서 존재적 한계를 극명하게 드러내 보이는 게 바로 전설의 속성이라 하겠다.

2) 뿔에 대한俗의 대결

백제 때의 전설로서 <도미아내> 이야기가 있다.²⁰⁾ 도미라는 평민이

20) 김부식, 『삼국사기』 열전 제8.

있었는데 그의 아내가 곱고 예뻐 뿐만 아니라 절조가 있어 칭찬이 자자했다. 당시 난폭하고 어리석은 군주였던 개루왕(개로왕)이 소문을 듣고 도미아내를 탐해 계략과 음모로 협박하고 감언이설로 유혹하면서 몇 차례 겁탈을 시도했으나 도미아내는 지혜와 용기로서 이를 물리쳤다는 이야기다. 구성이 치밀하여 사건이 극적으로 전개될 뿐만 아니라 사건의 전개나 결말이 자연스럽게 때문에 하나의 희곡이나 단편소설로도 부족함이 없고 지금까지 활발하게 재현되고 있다. 하지만 이 설화의 가장 중요한 모티브는 도미아내와 개루왕의 대립적 캐릭터라 하겠다. 도미아내의 미모, 정절, 지혜 등의 聖(美)과 개루왕의 음탕, 포악, 우매 등의 俗(醜)의 상반된 성격은 이야기 자체만으로도 주목할 만하다.

전설 가운데는 산을 비롯한 바위, 샘, 못과 같은 자연물을 증거로 삼은 이야기가 많다. 물론 전설은 전국적으로 전승되면서 각 지역에서 증거물을 찾아볼 수도 있다. 예로는 <홍수>전설, <장자못>전설, <오늬힘내기>전설, <義狗塚>전설, <떠내려온 산>전설, <빈대절터>전설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장자못>전설은 강원도 태백시내에 있는 황지연못을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100여 곳이 넘는 지역에 분포되어 있다. <장자못>전설은 충청도·전라도의 장자풀이나 제주도의 천지왕본풀이 등의 서사무가와 내용이 유사하여 무속신화에 미친 전설의 영향을 짐작케 하기도 하며 『창세기』의 ‘소돔과 고모라’와 통하는 만큼 세계적인 분포를 보이고 있기도 하다. 무엇보다 서사구조의 핵심인물인 며느리의 위상은 주목받을 만하다. 장자의 탐욕을 억제하고 도승의 탈속을 지향하기 때문이다.

옛날 시주를 청하러 온 노승에게 욕심 많은 황부지는 시주 대신 쇠똥을 퍼주었다. 이것을 본 며느리가 놀라서 노승에게 시아버지의 잘못을 빌며 쇠똥을 털어주고 쌀 한 바가지를 시주했다. 노승은 “이 집의 운이 다 하여 곧 큰 번고가 있을 터이니 살려거든 날 따라오시오. 다만 절대로 뒤를 돌아보아서는 안 되오”라고 말했다. 며느리가 노승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는데, 갑자기 자기 집 쪽에서 번개와 함께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며느리는 노승의 당부를 잊고 그만 뒤를 돌아보고 말았다. 순간 자신은 돌이 되었고, 집은 땅 속으로 꺼져 큰 연못이 되었다.²¹⁾

계모와 본처 딸과의 갈등을 축으로 삼는 우리의 <콩쥐팥쥐> 같은 이야기는 신데렐라형 민담이다.²²⁾ 간교하고 추악한 세력과 외롭게 대결하면서 천우신조로 통쾌한 승리를 거두는 아름다운 <콩쥐팥쥐> 이야기는 성공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깨닫게도 해준다. 전 세계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까닭도 사람들이 정상의 자리에 서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아픔과 극복의 의지가 있어야 한다는 평범한 진리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콩쥐팥쥐>는 우리의 서사무가인 <허웅애기본풀이>의 원천이 되기도 했다. 선과 악의 대립으로 대표되는 <홍부와 놀부>도 마찬가지고, 인간과 인간의 변형으로 거론되는 <호랑이와 토끼> 같은 힘과 피의 대립도聖俗의 대립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본다. 토끼가 왜소하기는 하지만 호랑이가 지닌 권력의 우둔함을 비웃을 수 있는 것은 상상의 이야기를 통해서만 가능할 것이다. 한편 거북이와 대립하는 토끼는 교활한 동물의 표본이 되며 약삭빠른 토끼도 느낌보 거북에게는 꿈쩍없이 당하기만 한다. 동물 우화가 드러내는 인간관계의 미묘한 갈등과 현실에 대응하는 삶의 방식 등에 공감할 수 있다. 『삼국사기』에 나오는 우리의 <구토설화>²³⁾도 지혜로움과 우매함이라는 인간세계의 聖俗 개념적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2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구비문학대계』1-1 「용소와 며느리바위」, 1980-1988, 259~262면.

22) 가령 베트남에도 전래동화 ‘땀과 감’ 이야기가 있고, 중국의 마오족에게는 ‘오리와 오도’ 이야기가 있다.

23) <구토설화>는 인도의 불전설화인 <龍猿설화>를 모태로 하고 있다.

3) 미천함의 역동적 성취

전설 가운데는 인간본질의 지향이나 인간성의 회복에 접근하는 이야기가 많다. 먼저 영웅적 성인이 아닌 어린 아이의 지혜를 부각시키는 전설도 있어 주목의 대상이 된다. 울산부사가 설악산에 유람 갔다가 울산바위가 있다는 말을 듣고 근처에 있는 절에 가서 바윗세를 거둬가기 시작하면서 절이 재정적 위기에 처하게 되자 동자승이 나서서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는 것이다. 전하는 내용의 한 대목을 대충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

울산에서 세금 받으러 오자 쓸모없으니 바위를 도로 가져가라고 했다. 그러자 가져가겠으니 재로 끈 새끼로 바위를 얹어 놓으라고 하였다. 그러자 동자승이 동네 사람들을 시켜 새끼를 끈 후 소금물에 적셔 바위전체를 감아 놓고 불을 질렀더니 걸만 새까맣게 그을렸다. 세금 받으러 온 사람들에게 바위를 가져가라고 했더니, 재로 끈 새끼를 보고 두 말도 못하고 가버렸다.²⁴⁾

이동해온 산 또는 바위가 원래 있었다는 지역의 관아에서 세금을 거둬가므로 마을주민들이 곤경에 처했다. 그 때 마을의 어린 중이 등장하여 사태를 슬기롭게 해결함으로써 더 이상 어려움을 겪지 않게 되었다는 이야기이다. 사회 현실의 복잡한 문제를 해소함에 있어 아직 성숙하지 않은 어린애의 힘을 비는 데서 인간의 존재적 가치를 드높이고 있다.

오대산 월정사의 <信孝거사> 전설²⁵⁾은 의미가 크다. 신희에게 전에는 사람들이 모두 짐승처럼 보였었는데 중이 되어 河率이라는 곳에 이르러 모두 사람으로 보이므로 거기서 살게 되었다고 한다. 진정한 자아를 찾기 위해 방황하다가 마침내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는 곳’에 멈추는 행위야말로 인간 존재의 탐색을 여실히 보여주는 예라 하겠다. 명의인 <秦國泰>

24)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구비문학대계』24 「울산바위의 유래」, 1980-1988, 252~257면.

25) 일연, 『삼국유사』 권 제3, 탑과 불상 제4 오대산 월정사와 五類聖衆,

가 소년시절 “구슬을 삼킨 후 하늘과 땅을 보기 전에 사람을 먼저 봤기 때문에 천지 일은 모르고 사람의 일은 알아 명이가 되었다”²⁶⁾고 하는 전설도 같은 맥락으로 봐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의 전설에는 인간성 회복을 위한 냉철한 분석이 돋보이며 우리로 하여금 인간적 가치를 자각하도록 유도한다.

민담의 주인공은 대개 못한 인물로서 인간적 가능성을 드러낸다.²⁷⁾ <삼형제>에서처럼 가난하고 우직한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훌륭한 색시를 얻으며 <백정과 박문수>에서와 같이 하류층의 백정이 도량과 인격을 갖춘 인물로 등장한다. <원님을 이긴 어린아이>에서는 어린아이가 아버지의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바보>이야기에서는 바보가 높은 신분의 여성과 결혼까지 한다. 어느 나라 민담이든 이야기 속의 영웅은 대개 어린 아이나 여자이듯이 평범한 인물의 삶을 생동감 있게 반영한다는 점에서 합리적이라 할 수 있으며 일상적인 위계를 무너뜨리는 극적 구조라는 점에서 감동을 준다. 신화에서는 초월적 신이가 의심 없이 관철되며 전설의 경우 뜻밖의 사태를 빚어 실패로 이르게 하지만, 민담의 경우 뜻밖에도움을 주어 성취에 이르도록 한다.

이 밖에도 <홍부와 놀부>, <도깨비방망이>, <우렁각시>, <구복여행>, <나무꾼과 선녀> 등 수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보여주는 긴장과 고난은 인간 행복의 성취가 얼마나 힘든 것인가를 반증한다. 물론 고난을 이겨내고 행복한 결말을 이루는 데 작중 의도가 소임을 다하며, 힘든 과정을 통해 간절한 소망의 성취를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민담은 즐거움을 추구하면서도 인간의 여러 가능성에 기대어 도덕적 기능을 발휘한다. 민담이 대개 결핍된 상황으로 시작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으며 외롭고 초라한 사람들이 어려운 역경을 헤치고 마침내 성공하여 잘 먹고

26)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구비문학대계』9-2 월계 진좌수, 614~615면.

27) 원님이 된 양반의 어리석은 말과 행동을 조롱하는 <바보원님>설화도 있다.

잘 살았다는 행복한 결말에 이르는 경우가 많다. 효도·충성·우애·정절·신의와 같은 보편적인 윤리관의 준수야말로 행복한 결말을 얻는 첩경이 된다는 점을 민담은 누누이 보여 주고 있다.

4. 남성과 여성

신화는 태초의 창조 또는 존재의 근원에 대한 이야기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항상 궁극적인 물음에 대한 해답의 추구가 신화의 핵심적인 내용이 된다. 어떻게 천지가 열리고 인간이 창조 되었는가 등이 세계 신화들의 공통적 관심이 아닐 수 없다. 존재의 근원을 묻는 신화의 장르적 특성으로 인해 한국의 신화는 크게 무속신화, 건국신화, 성씨시조신화, 당신화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신화를 본풀이라 일컫는데 비해 무속신화가 지닌 가장 중요한 속성을 본풀이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신화 가운데 무속신화가 기본이 된다. 대표적인 무속신화로는 죽음을 천도하는 <바리데기> 이야기를 비롯하여 생산을 관장하는 제석신의 유래인 <제석본풀이(당금애기)>를 들 수 있다. <바리데기>의 경우, 부왕은 일곱째 딸이 태어나자 아이를 내다 버리라 했고 부모로부터 버림받았다 하여 바리데기 공주로 불렸던 것이요 <제석본풀이>는 생명을 점지해주는 삼신의 내력을 읊은 것이다. 이밖에도 무속신화는 많이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천지창조 신화나 인류기원신화는 매우 미약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우리의 문화는 북방문화와 남방문화의 두 갈래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북방문화 요소의 하나로 천손신화를 들고 있는데, 고조선의 단군, 부여의 해모수, 고구려의 주몽, 가야의 김수로왕 등 상고시대 국가 창엽의 시조들은 알로서 또는 직접 인간의 몸을 가지고 하늘에서 강하한다. 우리의 남방문화적 계통으로 민족의 지도자가 알에서 태어났다는 내

용의 난생이야기는 동명왕, 탈해왕, 박혁거세, 김수로왕 등 시조신화에 가장 많이 나타난다. 물론 동명왕의 아버지가 하늘의 해모수이듯이 난생신화의 인물들도 하늘과 연관이 깊으며, 특히 박혁거세와 김수로왕은 하늘에서 내려온 알에서 태어난다. 결국 우리의 시조신화는 남성적인 북방 유목민의 천손신화와 여성적인 남방 농경민의 난생신화의 융합으로 이루어진 사실을 알 수 있다.

시조 동명성제는 성은 고씨요 이름은 주몽이다. 천제자인 해모수와 사통한 하백녀 유화는 부친인 하백신에게 쫓겨나 금와에게 의탁하거나 일광에 감응하여 큰 알을 낳았다. 금와가 상서롭지 못하다고 버리려 했으나 못자 연물들이 알을 보호하므로 다시 유화에게 주었다. 그 알에서 기골이 빼어난 사내아이가 태어났다. 특히 활쏘기에 능하여 이름을 주몽이라 했다.²⁸⁾

부여와 고구려신화에 공통되는 신화적 요소의 특징은 난생이다. 그런데 난생으로 태어난 시조가 부여신화에서는 동명이라 하고 고구려신화에서는 주몽이라고 하고 있으나 양자는 같은 부여계통의 신화로 보는 것이 온당할 것이다. 고구려는 건국시조의 부모를 북부여의 시조로 등장했던 천체 해모수와 하백 수신의 딸인 유화로 설정한 신화를 통해서 시조 주몽의 신성을 드높이고자 했다. 이는 환웅과 웅녀가 혼인하여 단군을 낳은 점, 즉 天父地母의 혼인을 통해 단군 신인이 태어난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으며, 천부지모의 신성혼인은 다른 신화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것으로 한국신화의 구조적 전형이라 할 만하다.²⁹⁾

이 같은 건국신화 속에서 천신이라는 남성적 존재와 지신이라는 여성적 존재의 융합과 더불어 단군의 탄생이 이루어지는 구조는 나라의 권위를 세우고 민족적 구심점을 강화한다. 특히 천손계 신화로 대변되는 우리

28) 일연, 『삼국유사』 기이편, 고구려.

29) 강동학 외 『한국 구비문학의 이해』, 월인, 2000. 55면.

의 건국신화에는 중국의 천자 관념과 달리 나라 전체가 집단적으로 하늘을 숭앙하는 공동체의식이 바탕을 이룬다.

한편 남성과 여성의 융합관계에서 드러나는 핵심가치로서 생명사상의 고취를 들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이야기로서 우리나라 지명에는 지명이 탄생된 유래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³⁰⁾ <달래강>전설이 바로 그러한 대표적인 예이다. 물론 이 달래강 또는 달래고개와 관련된 설화는 전국적으로 30여 곳이 넘게 분포되어 있다. 충주지방에 분포되어 있는 전설 하나만 골라 내용을 간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여기 충주라는 지방엔 달래강이라고 있는데, 달래강은 어떻게 해서 달래강인가 하든 옛날에 이제 아들 하나 딸 하나 오뉘를 두고 살다가서 부모 두 분이 다 돌아가시니까 두 오뉘가 살며 농사를 저 먹으며 사는데, 원 이쪽에 있었는지 저쪽에 있었는지 그거는 모르는데, 달래강을 건너가 농사를 짓다 보니까 소낙비가 오니까 달래강 물이 많아졌어. 과년한 오빠 하구 과년한 동생하고 둘이 받을 때 농사를 짓다가 그래 되니까 옷을 벗구서 강을 건너오다 보니까, 그만 참 저어 마음에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를 벗은 걸 보니까 그 자지가 일어서니까, 그만, “야 이놈 너 일어설 때 일어설 일이지 이런데 일어서는 법이 어디 있느냐?”하고 낫을 가지고 일하러 갔다가 낫으로 제 자질 툇 자르고 그만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었어. 그러니까 그 동생이 하는 말이 “날 보고 달래나 보지, 달래나 보지”하고 자꾸 울고 앉았어. 그래서 통곡을 하다 그 동생도 그만 오빠가 죽은 데서 그만 죽었대. 그래 달래나 보지 달래나 보지 그랬다 해서 그래 달래강이라 이름 지었어.³¹⁾

이 이야기는 평범하게 살아가는 서민들의 애환이 담겨 있는 설화다. 갑

30) 지명 탄생의 유래와 관련하여 <이태원>전설은 현재의 이태원동에 雲鍾寺라는 절이 있었는데, 그곳의 한 비구니가 가토 기요마사에게 겁탈을 당해 임신을 한 후 아기를 낳자 그 집을 ‘異胎’라 하였고, 나중에 그 곳이 큰 배 밭이 되었으므로 梨泰院이라고 쳐 불렀다는 것이다.

3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구비문학대계』3-1 「달래강 유래」, 1980-1988, 96면.

작스런 소나기에 옷이 흠뻑 젖고 불어난 강물을 건너려고 누이가 옷을 벗자 그 알몸을 본 오빠는 자기도 모르게 성적 충동을 느꼈다. 오빠는 순간 죄의식에 사로잡힌 나머지 자신을 벌하기 위해 성기를 낮으로 쳐 죽고 말았다. 어처구니없는 상황에 처한 누이동생은 정신을 차리고 오빠를 끌어안았다. 그리고 “달래나 보지, 달래나 보지”하며 절규했다. 그리하여 그 강의 이름이 ‘달래강’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한국설화에서 드물게 볼 수 있는, 근친상간³²⁾을 모티프로 하는 설화로 규정짓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 이야기의 본질은 근친상간과는 무관하게 봉건시대의 윤리관을 뛰어넘는 인간적 본능 내지 살아있는 인간의 모습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다름 아닌 생명을 중시하는 사고의 소산이라 하겠으며 나아가 인본주의 또는 실존주의적 성격을 대표하는 설화의 하나로 꼽힌다고 본다.

역사적으로 구애를 거부한 남성에 대해 죽은 여성의 원혼이 보복하는 이야기들도 규범적 윤리관에 반하는 인간주의적 관점의 반영이라 하겠다. 정절을 목숨보다 중시했던 봉건시대의 산물로서 많은 열녀설화가 있지만 동시대에 정절을 버리고 생명을 구하는 설화도 있어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남편과 자고도 자결했다는 열녀>이야기와 같은 극단적인 정절관, 경직된 윤리관에 대한 비판의식이 있었다. 여성에게만 일방적으로 정절을 강요하던 비인간적인 이념은 도전을 받아 마땅하다. 병든 남편을 구하기 위해 훼손하는 여인들의 이야기가 구전되고 있음은 인간의 생명을 중시하는 새로운 윤리관의 일단이라 하겠다. 본 남편을 위해 희생해야 하는 여성의식의 한계는 있으나 烈女不更二夫라는 준엄한 규범을 넘어서 인간의 생명을 우선시켰다는 점은 진일보한 시각의 표출이라 할 수

32) 남매가 부부가 되는 <홍수전설>은 고대 인도를 근원으로 중국의 영향을 받은 창세 설화라고도 하는데, 『구약성경』의 노아 관련담에서도 나타난다는 점에서 세계적인 설화라고 할 수 있다.

있다.

생명 탄생으로 이어지는 남녀융합의 혼숙과 관련되는 이야기로서 <나무꾼과 선녀>전설을 들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분포되는 가운데 우리나라에 수용된 이 설화는 전통적 ‘효’에 기반을 둔 내용으로 변이되고 있다. 천상에서 잘 살던 나무꾼은 홀어머니를 만나기 위해 지상으로 내려오고 끝내는 처자와 이별하는데 이별의 원인도 지상의 노모가 오랜만에 나타난 아들에게 평소 즐기던 호박죽(또는 팥죽)을 끓여 먹이는 모성애로 인한 금기의 파괴이다. 혼인도 못한 나무꾼에게 천상은 탈출구가 되나 부모를 섬겨야 하는 도리는 지상과제가 되며 다시 천상에 두고 온 처자를 그리워하는 인간의 심리가 적나라하게 묘사되었다. 인간의 이상세계에 대한 동경과 현실적 갈등을 잘 보여주는 인본주의적 사례라 하겠다.

<두더지혼인>과 같은 민담의 경우 인간적 가르침과 삶의 질서를 되돌아보게 하는 바 자신을 소중히 여기며 허튼 욕심을 누르고 직분에 충실할 것을 깨우쳐 준다. 어떤 두더지가 항상 땅속에서만 생활하는 처지에 불만을 품고 자식만은 넓은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게 하려고 높은 혼처를 구하고자 했다. 그러나 실패로 돌아갔고 어리석음을 뉘우치고 “나는 두더지가 두려울 뿐이다.”라고 말하면서 두더지는 거만한 모습으로 돌아와 결국 다른 두더지와 결혼했다.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권위나 형식이 아닌 자유와 순수의 가치를 깊이 깨닫게 된다.

Ⅲ. 맺음말

우리의 설화에는 공동체 의식의 고취가 눈에 띈다. 이러한 휴머니즘적 사유를 이야기 사례를 중심으로 융합적 방식에 따라 분석해 볼 수 있었다.

인간과 신(자연)의 경우, <단군신화>는 하늘로부터 땅에 이르는 자연을 기반으로 인간이 탄생되었듯이 인간이 자연과 조화(융합)를 이루는 것이 이상적인 삶을 암시한다. 인간을 중시하는 한국적 사유체계가 우리의 대부분의 신화에서도 엿보이는데 많은 한국의 신화가 역사적 인물의 신격화 과정을 말하고 있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건국시조들은 왕업을 성취한 후 죽어서 산신이 되거나 시조신 격으로 숭앙을 받게 되며 전국의 많은 마을들이 원통하게 죽은 역사적 인물들을 신격화하여 마을의 신으로 모시게 된다.

인간과 동식물의 경우, 먼저 ‘동식물의 인간화 및 구원’에서는 <단군신화>에서 언급되는 것처럼 여성의 몸으로 변한 곰토텐을 비롯하여 단수나 속과 마늘이 갖는 식물숭배의 토텐이즘을 간과할 수 없다. 또한 <김현감호>설화에서와 같이 호랑이는 일찍부터 여성토텐으로 숭앙되었다. 다음으로 ‘인간의 동식물화 및 구원’에서는 <효자호랑이>전설처럼 남편이 호랑이가 되어 맹목적으로 효를 실천하는 비극적인 결과를 지적한다. <대왕암>전설처럼 문무왕이 죽은 뒤에 용이 되어 나라를 지켜주고, <선비와 구렁각시>처럼 여인의 정체가 구렁이임을 알고 위기에 처해서도 의리를 발휘하여 용이 되도록 도와주었다.

인간과 인간의 경우, ‘이상과 현실의 괴리’에서 <오장군> <임경업>전설처럼 주인공이 긍정적인 인물이고 비범한 능력의 소유자이나 불운하게 좌절하고 만다. <아기장수>전설처럼 가혹한 정치에 시달리는 민중들이 장군의 출현을 기원하지만 막상 장군이 나타나자 그를 거부하고 만다. ‘聖에 대한俗의 대결’에서는 <도미아내>처럼 아름다운 도미아내를 탐하는 개루왕의 추악함이 문제되고, <장자못>전설처럼 도승의 탈속을 지향하는 머느리에 욕심 많은 황부자 영감이 부각된다. ‘미천함의 역동적 성취’에서는 <울산바위의 유래>처럼 절이 재정적 위기에 처하게 되자 동자승이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고, <백정과 박문수>이야기와 같이 하류계

층의 백정이 도량과 인격을 갖춘 인물로 등장한다.

남성과 여성의 경우, 우리의 시조신화는 남성적인 북방 유목민의 천손신화와 여성적인 남방 농경민의 난생신화의 융합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남성과 여성으로 유추되는 천부지모의 신성혼인은 한국 신화의 구조적 전형이라 할 만하다. 특히 <달래강>전설에서와 같이 남성과 여성의 융합관계에서 드러나는 생명사상의 고취를 우리 이야기의 핵심가치로 삼을 수 있다.

참고문헌

- 『삼국사기』(김부식), 『삼국유사』(일연), 『서울민속대관』(서울시),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민속의 세계』(고려대).
- 강등학 외, 『한국구비문학의 이해』, 월인, 2000.
- 이명현, 「외국인의 한국문화 교육에서 고전소설의 가치와 학습 방향」, 『다문화콘텐츠 연구』 17, 중앙대학교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2014.
- 이화형, 『민중의 꿈, 신앙과 예술』, 푸른사상, 2014, 7면.
- 임재혜, 「단군신화에 갈무리된 문화적 원형과 민족문화의 정체성」, 『단군학연구』 16, 고조선단군학회, 2007.
- 장덕순 외, 『구비문학개설』, 일조각, 2006.
- 조동일, 『인물전설의 의미와 기능』, 영남대출판부, 1979.
- 홍순창, 「원시생활에 나타난 한국의 고유한 사고와 사상」, 『한국민족사상사대계』 1권, 아세아학술연구회, 1971.
- B. Malinowski 지음, 서영대 옮김, 『원시신화론』, 민속원, 1996.

이 논문은 2015년 6월 9일에 접수되어,
2015년 6월 26일에 심사를 의뢰하여 7월 6일에 심사 완료되었으며,
2015년 7월 10일 편집위원회 회의에서 게재가 확정되었음.

A Study on the Humanism in Korean Folktales

—focused on fusion—

Lee, Hwa Hyung

There are lots of contents of respecting man's life and dignity and intending to community spirit in Korean folktales. And they intended to make the new ethics focused on men centric. So we can analyze the humanistic thought focused on the fusion style.

In the case on human and god(nature), Tan-gun mythology suggest that it's a ideal life to make harmony between man and nature as men born based on nature. The Korean thinking system focused on human can be seen in the most of mythology. And there are the efforts to deify the historical person in lots of Korean mythology. The persons who founded country were worshiped as the founder gods. The historical persons dead awfully were designed in lots of towns.

In the case of men and animals and plants, there are the bear totem and the totemism of plant worship as in <Tan gun myth>. Also tiger was worshiped as woman totem as in the folktale <Kim Hyun kamHo>. And in 'the being of animal and plant from man and the salvation', there is a tragic story of a husband try to be a tiger to be a good son as in the legend <a good son tiger>.

Key Words : Korean folktale, fusion, humanism, man, god, animal, plant